

“조계종과 선학원은 한 뿌리”

원로회의, 선학원에 연석회의 제의 공문 보내

23일 정오 AW컨벤션센터서 선학원 “참석 여부 논의 중”

조계종 원로회의가 법인 등록을 놓고 종단과 갈등 중인 (재)선학원에 연석회의를 제의했다.

조계종 원로회의는 의장 밀운 스님 명의의 공문을 선학원 이사과 감사 등 임원진에 7월 14일자로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원로회의는 오는 7월 23일 정오 AW컨벤션 센터에서 ‘원로회의의 주최 종단과 선학원 스님 연석 간담회’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로회의는 “선대 스님들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혼란기에 한국 불교의 전통과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선학원을 출범하고 조계종을 출범시켰다. 원로의원들은 조계종과 선학원이 한 뿌리임을 의심치 않는다”고 전제하고 “종단과 선학원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에 지난 7월 8일 열린 49차 원로회의에서 대화의 장을 모으는 자리를 만들 것을 결의했다”고 초청

취지를 밝혔다.

이어 “조계종과 선학원은 전통 한국불교를 수호하려는 우리 선사들에 의해 설립된 하나의 조직”이라면서 “조계종과 선학원은 둘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간담회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안은 종단 원로회의 차원에서 처음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선학원의 제의 수용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선학원 관계자는 “원로 스님들의 제안인 만큼 심사숙고해서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사회회의의 논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1일 선학원 이사회 스님들과의 간담회를 열자고 제안 공문을 보냈지만, 선학원은 3일 회신 공문을 통해 “법인관리법과 종헌 9조 3항에 대해 대화를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계종이 정한 법인관리법 유예조치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선성민 기자

송전탑·고속도로에 사찰 수행환경 ‘몸살’

수도사, 15일 기자회견… “송전탑 철거 및 도로 이격” 주장

경기 광주 수도사가 송전탑과 고속도로 공사 시공으로 사찰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으로 주지 스님과 신도들은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지경이다.

수도사 주지 청호 스님은 7월 15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탑과 도로 공사로 수행환경과 수행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호 스님은 “사찰 뒤로는 송전탑이 설치됐고, 앞으로는 고속도로 개통이 예정돼 있다. 수행도량으로서 위상이 훼손되고 수행환경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에 수 차례 공문을 보내고 민원도 제기했으나, 모든 답변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보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재 수도사의 30~50m 뒤편에는 지난 2008년 설치된 신안성-신가령 구간을 잇는 765kV의 송전탑이 들어섰다. 또한 앞쪽으로는 2016년 착공에 들어가는 이천~오산 민간투자사업 고속도로 건설까지 예

정돼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찰 뒤편에 위치한 대형 송전탑으로 인해 스님과 신도들의 건강 악화까지 이어지고 있다. 평소 건강을 자신했다는 청호 스님은 “최근 들어 두통과 어지러움을 만성적으로 겪고 있다”면서 “특히 송전탑에서

송전탑 소음에 스트레스 악화

주지 스님 만성 두통에 시달려

고속도로 예정... 사찰 고립 우려

나는 소음으로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수도사 신도 박봉순(67, 경기 광주) 씨는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 소음이 너무 심하다. 사찰 마당에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수도사 앞에 들어서는 이천~오산 간 고속도로도 문제다. 서울지방국도관리청과



수도사 주지 대웅전 뒤에 흉물스럽게 서있는 고압송전탑. 주지 청호 스님은 송전탑의 소음으로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

주식회사 오산광주고속도로가 개설 추진 중인 이 고속도로는 지난 2014년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확정됐다. 문제는 이 고

속도로가 수도사 앞 80m 가량의 인접지를 지나는 노선이어서, 수도사는 공사 중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개통 후에도 소음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다.

스님은 지난해 3월부터 서울지방국도관리청과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담당자에게 수행 환경을 고려해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사업 중지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분 추후 내용을 알려주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수도사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고압송전탑으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종단과 협의를 통해 2016년 개설 예정인 오산광주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청호 스님은 “그동안 마을 주민으로서 관계 기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인내하며 기다려왔다”면서 “그러나 송전탑이 이어 도로까지 들어서면 수도사는 수행도량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송전탑 철거와 도로 노선 변경만이 사찰을 지킬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성민 기자 mtop79@hyunbul.com

‘2015 회당문화축제’ 울릉도서 열린다

진각종, 7월 27일~30일... ‘비나리’ 주제

김경호 밴드 등 공연 진행

독서서 ‘진호국가 불사’ 열어

지난해 세월호 여객선 침몰 참사로 위 소년 진각종 회당문화축제가 오는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각성종 회당대중사 탄생지인 울릉도 일대에서 열린다.

진각종이 주최하고 회당문화축제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2015 회당문화축제’는 ‘비나리’란 주제로 체험·전시마당과 공연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체험·전시마당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도동항 일대에서 진행된다. 진각종 종무원과 자원봉사단의 진행으로 리본공예와 에어브러쉬, 페이스 페인팅, 전통 한지 부채 만들기, 단주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아울러 독도사진전, 동해와 독도표기 지도전 등의 전시마당도 열린다.

공연마당은 28일 오후 7시 한마음회관에서 울릉도 지역 해군, 공군, 전·의경 등 초청 ‘동해 지킴이 위문콘서트’가 열린다. 콘서트에는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학생과 보컬그룹 J&B, VIYA 강남지부 밴드 동아리의 공연이 펼쳐지며 공연 후에는 장병들에게 위문품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8시 도동항 소공연에서도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동항 작은 콘서트가 진행된다.

회당문화축제 주 행사인 독도 아리랑 콘서트는 29일 오후 7시 30분 도동항 광장 특설무대에서 막이 오른다. 행사에는 가수 김경호 밴드를 비롯해 불후의 명곡을 통해 잘 알려진 박애리&팝핀현준 부부의 국악+팝핀 공연, 비보이, 피아노와 트럼펫토리 등의 퍼포먼스 공연, 울릉도 저동 꿈나무 어린이집 원생과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초청공연이 펼쳐진다. 부대행사로 28일 진각성종 회당대중사 탄생지 금강원 참배 불사와 29일 독도에서 ‘광복 70주년 진호국가불사’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회당문화축제는 1902년 울릉도서 탄생한 진각종조 회당 대중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됐으며, 지역문화발굴 등 문화복지 개념이 어우러진 국민화합대축제로서 지역 문화축제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회당문화축제준비위원회는 “올해는 우리 사회에 담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명 나는 분위기를 진작시키고자 한다”면서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회당문화축제의 나라 사랑 의미를 전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의현 스님 재심 판결 논란 잇달아

조계종 재심호계원의 前 총무원장 의현 스님 재심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줄·재가단체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94년 불교개혁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16일 1차 토론회를 열고 현 사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모색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 스님은 발제를 통해 “의현 스님 재심 판결은 누적됐던 현 종단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사태가 그대로 용인되면 94년 개혁 당시 내걸었던 5대 지표도 얼마든지 무시하고 갈 수 있게 된다. 판결을 원천 무효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가단체들이 주장하는 ‘정법하지 않는 출가자에 대한 공양 거부 운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1994년 종단개혁 동맹 재가자들은 7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현 스님 재심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교단자정센터는 재심 판결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출제가 대중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조계종 집행부는 일종의 선긋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교육원장 현웅 스님이 7월 16일 종무원 조합 특강에서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체감할 수 있다.

현웅 스님은 “의현 스님 재심판결만으로 1994년 종단개혁 정신이 훼손됐거나 부정됐다는 말은 지나친 것”이라며 “종단 개혁 정신은 앞으로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재심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을 무리하다고 할 것인지, 편법으로 한 것인지, 정치적

출·재가단체들 비판 가속화

현웅 스님 “개혁 정신 훼손 아니다”

오는 29일 대중공사, 분수령 될 듯

종책모임들 “종회가 해결해야”

으로 풀었다고 할 것인지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종무원으로서 차분하게 이 문제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오는 7월 29일 서울 잠실 불광사에서 열리는 5차 100인 대중공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적지 않은 출제가 대중들이 대중공사를 사태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

역시 1994년 종단 개혁 참여 승·재가를 비롯해 비상대책회의, 중앙총회의원 등을 위원으로 초청해 참여의 폭을 확대했다.

조계종 중앙총회 총책모임들도 잇달아 모임을 열고 논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탈민자 사면을 위한 종법 개정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불교광장은 7월 1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현 스님 재심판결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불교광장은 “7월 29일 예정된 대중공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중앙총회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화도당은 7월 1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종헌과 호계원법, 개혁정신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의현 스님 사면문제를 중앙총회에서 다루자”고 제안했다. 이어 “94년 종단개혁 당시 징계자들에게 대한 사면은 호계원의 심판이 아니라 중앙총회에서 종헌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며 “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사면은 대중공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현행 종헌종법 내에서 대중공의를 모을 수 있는 길은 대의기구인 중앙총회에서 종헌개정을 통해 사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성민 기자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 임명

자승 스님, 15일 임명장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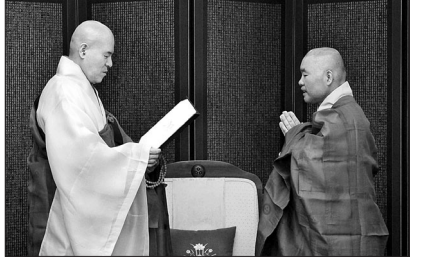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에 월우 스님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15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대흥사 신임 주지 월우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단독 후보로 나섰던 월우 스님은 지난 7월 10일 산중총회를 통해 주지 후보로 당선됐다.

자승 스님은 “대흥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임 주지 스님이 여법하게 잘 이끌어왔다”면서 “월우 스님도 대흥사를 화합으로 잘 발전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월우 스님은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해인사에서 자승 스님을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2~14대 중앙총회의원과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도갑사 주지를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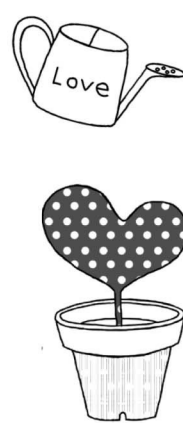
선성민 기자



2015년도 청소년마음등불 참가자 모집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형성, 학습력 저하 등의 문제를 진단하여 치유, 예방하며 스트레스, 우울증에서 벗어나 자존감 확립을 위한 <2015년 청소년 마음등불>을 실시합니다.

<청소년 마음등불>은 본원의 청소년 인증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내용으로 금강선원,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명상심리상담학회), 한마음과학원, 봉인사, 행불선원, 육지장사 등 각 기관의 명상센터(수련원)나 사찰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5년 7월 ~ 10월

장소 전국 명상상담센터(수련원) 및 사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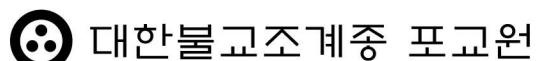
참가비 무료

대상 중·고등학교 청소년

접수방법 금강선원,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명상심리상담학회), 한마음과학원, 봉인사, 행불선원, 육지장사 등 각 기관의 명상센터(수련원)나 사찰 담당자의 연락처를 파일로 첨부하오니, 문의 및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청소년마음등불 담당자 Tel : 02-2011-1903, Fax : 02-720-7065, E-mail : kjs@buddhism.or.kr

주관 | 금강선원, 봉인사,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명상심리상담학회), 한마음과학원, 행불선원, 육지장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2015년도 청소년 명상캠프 프로그램

No	기간	지역	명상센터명	문의 및 접수처		참여 인원	비고
				담당자	전화/E-Mail		
1	6.1(토)~6.2(일)	경기 남양주	봉인사	김영환	010-5051-0222 / kimyhwan70@naver.com	30	마감
2	6.6(토)~6.7(일)	경기	육지장사	김용환	010-3201-7074 / hans1@hanmaum.org	50	추후공지
3	8.6(목)~7(금)	강원도	백담사	백거스님	010-9216-5352 / baekdamsa@hanmail.net	20	
4	7.11(토)~7.12(일)	서울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김문자	02-2236-5306/medithera@hanmail.net	20	
5	7.18(토)~7.19(일)					20	
6	7.24(금)~7.25(토)	부산	행복한 명상상담센터 미타선원	홍순하	010-5433-9855 / adagio8759@hanmail.net	20	
7	7.25(토)~7.26(일)	경기 이천	행불선원	조해정	010-3173-9718 / saeson63@hanmail.net	50	
8	7.25(토)~7.26(일)	경남 산청	맑은 명상상담센터(대원사)	해성스님	010-9494-6059 / namunge@hanmail.net	20	
9	7.31(금)~8.2(일)	충북	광명선원 한마음과학원			20	
10	8.3(일)~8.5(금)	부산	한마음선원	김용환	010-3201-7074 / hans1@hanmaum.org	30	
11	8.7(토)~8.9(토)	울산				20	
12	8.7(금)~8.9(토)	광주				20	
13	8.11(화)~8.12(수)	서울	탄허기념박물관	신미량	010-5392-1810 / ipc445@hanmail.net	30	
14	8.14(금)~8.15(토)	전라남도	명상상담센터 심	지오스님	010-4115-2303 / bongbusa@hanmail.net	20	
15	8.15(토)~8.16(일)	서울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김문자	02-2236-5306 / medithera@hanmail.net	20	
16	8.15(토)~8.16(일)	부산	한마음선원	김용환	010-3201-7074 / hans1@hanmaum.org	20	
17	8.22(토)~8.23(일)	경남 거창	지혜로운 마음 명상상담센터	일광스님	010-9144-9685 / ilguan@hanmail.net	20	
18	8.29(토)~8.30(일)	서울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김문자	02-2236-5306 / medithera@hanmail.net	20	
19	9.5(토)~9.6(일)	경기 부천	마인드힐링 명상심리상담센터정소 : 서울 봉도 청소년 수련원	이영순	010-5555-7103 / young196517@hanmail.net	20	